

금융토론회 자료집

NKDI-2021-04

남북한이 함께 쓰는 금융용어 사전

북향민 금융정책 실태와
금융 용어사전 집필 방향

2021. 04. 24

순서

개회사 -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김병욱

기조발표 -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천규승

발표내용

1. 금융용어 이해에서 본 북한민 금융정책 실태와 과제 - 김정숙
2. 은행거래 부문에서 통합적 이해와 용어사전 집필 방향 - 이기송
3. 비은행거래 부문에서 통합적 이해와 용어사전 집필 방향 - 이조영
4. 금융제도 부문에서 통합적 이해와 용어사전 집필 방향 - 이의선

북한개발연구소 소개

금융용어 사전 발간 계획

개 회 사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주말의 바쁜 일정과 코로나 환경에서도
학술토론회에 참여 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히 매월 진행되는 출간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각별한 조언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한
금융산업공익재단 김창희 사무국장님께
참여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북한 금융용어사전의 공동출간을 목표로 한,
여기 모인분들,
금융산업공익재단과 북한개발연구소 관계자분들,
그리고 집필진분들이 탄 배가
항구를 떠난지 4개월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풍파가 있었습니다.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계획대로 우리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두 바퀴자전거가 한 바퀴만 가지고 굴러갈 수 없듯이,
남북한 사전 출간은
여기 모인분들의 진실한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에 오기까지 남모르는 수고의 결과에 대한 자부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서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학술토론회 결과에 근거해 집필작업에 대한
최종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필의 중요성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비교했을 때,
전문용어의 일치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34.3% 미만입니다.

비유해 말한다면,

남한출신 전문가가 10개의 전문용어를 말했다 때,

북한출신 전문가는 머리를 끄덕이지만, 알아들은 용어는
3~4개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사전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깃발입니다.

두 토막이 난 조국의 언어를 통합하는데 기여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북한개발연구소의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이 사업이 4개월을 경과 한 오늘, 저는 출간위원장이 아닌,

북한개발연구소 소장의 자격으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전은 <53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소가 2015년 조직된 이래 빈손으로 시작한 <185프로젝트>가

북한의 185개 군구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사업이라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2021년도부터 시작된 <53프로젝트>는

53개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한 남북한 비교사전, 통합사전 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첫 걸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 떠난 이유,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선구자의 길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개월후이면

여기 모인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백과사전 형식의 사전이 나옵니다.

2,500부 배포의 출발지는 남한지역이지만, 종착지는 북한지역일 것입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이러한 자각을 높여주어 최종마감을 잘 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1

기 조 발 표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천 규 승

기조발표

통일을 위한 준비, 금융의 소통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천규승

I. 기본 전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춤하고 있다. 남북 정치권의 느닷없는 교섭으로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나 했더니 서로 셈이 달라 남만 못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통일이 요원한 까닭은 무엇일까? 실천적 준비 없이 성과만 서두르기 때문이다.

통일은 구호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집단의 선부른 의지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국민 각 계층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하며, 로드맵에 관한 세대 전반의 컨센서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실효적 시나리오를 씨 줄 날줄로 엮어 전방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 사상적으로 다양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앞서야 할 준비는 남북 주민이 통일 사회를 같은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순조롭게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통일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어야 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눈물 쏟으며 이루어나갈 감상적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관한 현실적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대적 체제로 살아온 지 76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상상 불가 수준으로 달라서, 경제적 프로토콜을 맞추는 작업은 그만큼 매우 어렵다. 북의 동포들이 바라보는 남의 경제체제는 모순덩어리이고, 남의 동포들이 인식하는 북의 경제 실상은 고난의 행군이다. 그렇기에 통일로 가는 길의 시작은 신뢰의 기반을 닦는 일이다.

서로 믿지 못하면 누구라도 함께 살 수 없다. 정서적으로는 우리 민족끼리 어우러져야 하고, 말로는 서로를 치켜세울 수 있지만, 함께 사는 문제는 다르다. 무엇보다 먹고사는 일에 믿음이 가야 한다. 돈을 벌고 쓰는 일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듯 같은 말을 쓰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동포 사이이지만, 우리에게서 서로의 인식을 맞추고, 함께 먹고 살 방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리트머스 대상이 있다. 바로 남북이 갈린 후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향민이다. 통일을 위한 실효적 준비가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북향민이 남한의 경제생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느냐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I. 북향민의 현실

6.25 이산가족을 제외할 때, 남북이 갈린 후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향민은 3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 사회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도 30여 년 가까이 되고, 북에서 살던 모습도 다양하며

여성이 80% 가까이 된다. 정착 교육을 이수하고 정착지원금도 받지만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취업이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어렵게 돈을 벌어도 폰지와 같은 다단계금융사기에 빠져 날리기도 하고, 보험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두고 온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금융용어가 다르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선뜻 신뢰하기도 어렵다.

북한민 대부분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부작용을 겪으며 정책적 신뢰를 상실한 이들이다. 고난의 행군 시대를 거치면서 최악의 순간을 각오하고 북한 이탈을 결심했고, 상상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진입했지만, 남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다.

우선 입경 시기에 따라 북한의 금융제도나 금융실태에 관한 인식이 제각각이다. 북한의 공식 금융시스템과 비공식 시스템, 불법 시스템을 구분하려 들지 않는다. 특히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린 2012년의 시장경제 일부 양성화 조치나 2021년 전후로 대북 제재나 코로나19, 풍수해 등으로 고난의 행군을 재연명 과정에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낯설어하고,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금융.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통일 과정에서의 경제적 통합 비용을 줄여줄 것이다.

성장 과정에서 받은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대화한 내용으로, 남으로 내려오기는 했어도 대부분 남한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선형으로 체화되어 있다. 남한에 정착하면서 세계 최대 극빈국의 빈곤을 벗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경계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벗어나기 힘들다.

경제 바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살아 온 세월이 습관이 되어 정부의 보호를 신뢰하지 않고, 제도에 거부감을 느낀다. 특히 금융거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고,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실명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 금융투자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최근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어느 통일행정 책임자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인건비가 베트남 근로자의 5분의 1밖에 들지 않으니 이익이라는 소리를 해서 답답한 적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노임 착취이다. 당장은 돈벌이가 되는지 모르지만, 통일은커녕 치유하지 못할 분열과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통일은 진영 논리에 빠진 열치기 정치꾼이나 한몫 잡으려는 장사꾼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러한 근본적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융합은 무릇 쌍방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통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뜻이 통해야 하며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생활에서의 융합은 특히 더욱 그렇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과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가치관의 교집합이 형성되어야 한다.

Ⅲ. 남북한 금융용어 사전의 의의와 가치

시장은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냉엄한 질서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 현실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욕구를 통제하고 손발을 움직여 꿈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에게만 효용을 안겨 준다. 더구나 경제생활이란 단순한 물리적 관계의 껍적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적 관계의 현재화

과정이다. 경제생활을 단순히 원론적 경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 아니면 돈벌이 수단이나 아껴 쓰는 요령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맥락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경제생활에 합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의사결정 과정, 적절한 선택 과정을 통해 실천적으로 배양되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욕구 통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북향민들이 맞닥뜨리는 경제 현실은 혼란스럽다. 시장 질서 형성을 국가가 주도한 데 대한 부작용으로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결정한 경제행위마저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미성숙한 경제 의식이 만연되어 있고, 기회의 형평에 앞서 결과의 균등을 요구하는 반시장적 관행에 익숙해져 있다.

북향민만이 아니다, 나라 전체가 외면적으로는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고도 네트워크 사회의 진전으로 정보가 수직, 수평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경제 질서의 융복합 성과를 누리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개인 중심의 폐쇄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책임 의식의 미비로 성숙한 경제 마인드를 배태하지 못한 채 사회적 일탈이나 외부사회와의 부조화, 배타적 경제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전환기적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향민의 경제생활 역량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기에 미흡하다.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배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프로토콜 일치의 기회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남한 생활 정착 초기 하나원에서 남한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하나, 단기간의 지식 전달에 그쳐, 오래된 습관을 벗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실효적 훈련 기회가 되지 못한다. 정부도 당장의 일자리를 찾고 살 집을 찾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 번 돈을 실제 어떻게 관리하며, 금융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실천적 역량 배양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향민의 생활 역량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는 바로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금융 생활에서의 소통을 돕는 일이다. 돈을 모으고 불리고 빌리는 일에 낙오되지 않아 안정적인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이다.

북향민이 남한 사회 정착이 순조롭게 진전될 때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이 어우러져 살아갈 경제 사회의 융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은 통일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통일과 금융에는 모두 신뢰와 소통, 프로토콜 일체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금융용어 비교 사전'은 통일 과정에서의 신뢰와 소통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먹고사는 이야기가 서로 통할 때, 돈에 관한 프로토콜이 서로 맞을 때, 그래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일은 우리 민족의 축복이 될 것이다.

02

발 표

김 경 속

이 기 송

이 조 영

이 의 선

금융용어 이해에서 본

북양민 금융정착 실태와 과제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연구원 김경숙 박사

목 차

첫째: 북양민 금융이해력 향상의 중요성

둘째: 4년차 조사결과를 통해 본 금융이해 실태

셋째: 조사자료 비교를 통해 본 시사점

넷째, 북양민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과제



북향민 금융이해력 향상의 중요성

첫째: 금융이해력은 개인재산 형성하고 보호의 안전장치

둘째: 금융사고에 따른 심리사회적 문제 예방

셋째: 북향민들의 한국사회정착의 핵심 부문

넷째: 남북한 언어통합과 금융부문 협력에 기여

4년 차 조사결과를 통해 본 북향민 실태

첫: 2021년 북한개발연구소 조사결과

둘: 2016년 기업은행 조사결과

셋: 2015년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넷: 2013년 한진수 교수의 조사결과

2021년

북한개발연구소 조사결과

(북양민 금융용어 이해수준)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합계
성별	남성	2	3.3	61명
	여성	59	96.7	
연령	1960~1970년생	10	16.4	61명
	1971~1985년생	51	83.6	
입국년도	5~10년	24	39.3	61명
	11년 이상	37	60.7	

조사결과 요약

첫: 금융용어 이해, 금융상품 인지 및 보유율, 금융제도 이용경험이 연계를 낮음

둘: 정책기간(10년 이상)길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금융이해력 다소 높음

셋: 정책기간(10년 이상)길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금융사고 더 많이 경험, 62.3%

관심 들 문제

금융이해력이 다소 높은 범주에 속한
북향민이 금융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

왜 이런 모순이 발견될까?

- 금융문맹이 만드는 모순, 실패를 통해 터득한 것임
- 금융용어/금융상품/금융제도 관련 금융지식이
연저히 결여, 다시말해 금융이해력 저하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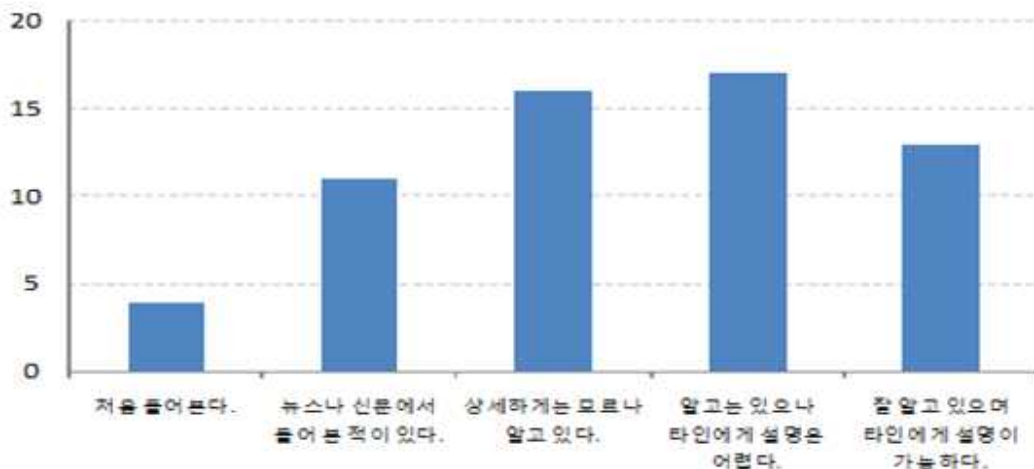


금융용어 인식과 활용도

* 남한 쟁착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높음

구분	빈도	퍼센트
처음 들어본다.	4	6.6
뉴스나 신문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	11	18.0
상세하게는 모르나 알고 있다.	16	26.2
알고는 있으나 타인에게 설명은 어렵다.	17	27.9
잘 알고 있으며 타인에게 설명이 가능하다.	13	21.3
합계	61	100.0

금융용어 인식과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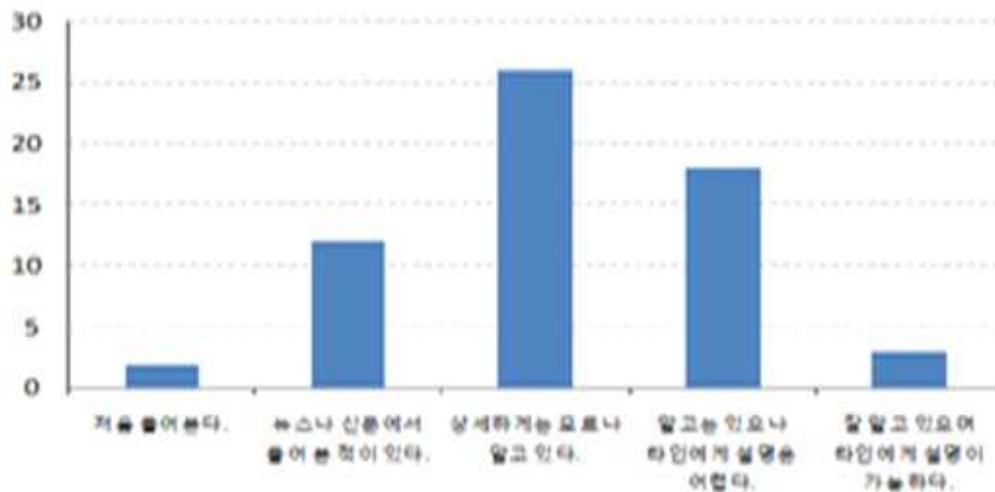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

4.9%만이 인식하고 활용 가능

구분	빈도	퍼센트
처음 들어본다.	2	3.3
뉴스나 신문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	12	19.7
상세하게는 모르나 알고 있다.	26	42.6
알고는 있으나 타인에게 설명은 어렵다.	18	29.5
잘 알고 있으며 타인에게 설명이 가능하다.	3	4.9
합계	61	100.0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





* 공동인증서 간편결제 이해
활용도 높음



*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이해도
높음



* 정착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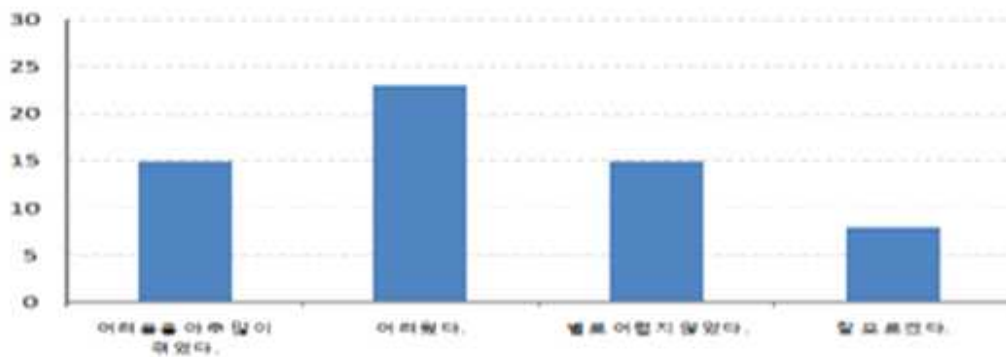
다양한 금융제도 이용 경험

- * 주택청약 제도 인지도 활용도 가장 높음
- * 세금우대제도, 신용회복제도, 서민금융제도 인지도 50%대 이용률은 10%대
- * 남은 살이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높음

금융상품 인지/보유/선택율

- * 보험상품, 정기적금 인지/보유/선택율 높음
- * 국민연금 주식 인지도 높지만 보유/선택율 낮음
- * 그 외 금융상품 인지/보유/선택여부 10%미만
- * 남안 살이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높음

금융정책의 어려움: 62.3%



2016년

기업은행 조사결과

(북안주민 금융이해력)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비율	합계
성별	남성(43.5%) 여성(55.5%)	69명
연령	20대(55.0%) 30대(36.2%) 40대(1.4%) 50대(7.4%)	69명
탈북시기	1~5(18.8%) 6~10(31.9%) 11~15(33.4%) 16년 이상(15.9%)	69명

북한주민의 금융이용 실태

첫째: 82.6% 은행 이용 경험 없음

이유: 믿지 못해서

자유롭게 저금하고 찾을 수 없어서

당국의 자금출처 조사 때문에

둘째: 은행대출 경험 98.6%가 없음

이유: 가계대출 제도가 없어서

담보가 없어서

개인대출이 불가능해서

북한주민의

금융이용 실태



셋째: 북한 주민의 돈 자입방법은



* 85.8%가 고금리로 돈을 빌려 장사, 생계유지



* 자입이자 연20~40%



* 대부분이 현금을 개인적으로 보유(88%)







* 이자놀이(6.0%) 은행예금(1.5%)



대부분 금융이용 경험 없음, 금융기관 불신 팽배,
고금리의 사금융제 이용

조사의 시사점

- ✓ 북한에서의 금융경험으로 인해
-  * 바람직하지 않는 금융태도, 행위 가질 수 있음
-  * 금융 사기에 쉽게 빠질 수 취약성
-  * 실제로 남한에서 금융정착의 어려움 겪고 있음
-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시사

2015년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전국민 이해력)

첫째: 소외계층에서 북향민 금융 이해력이 가장 낮음

둘째: 남한의 일반성인, 다문화가족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음

셋째: 금융지식수준, 금융상품 인지 및 보유율 현저히 낮음

금융감독원 조사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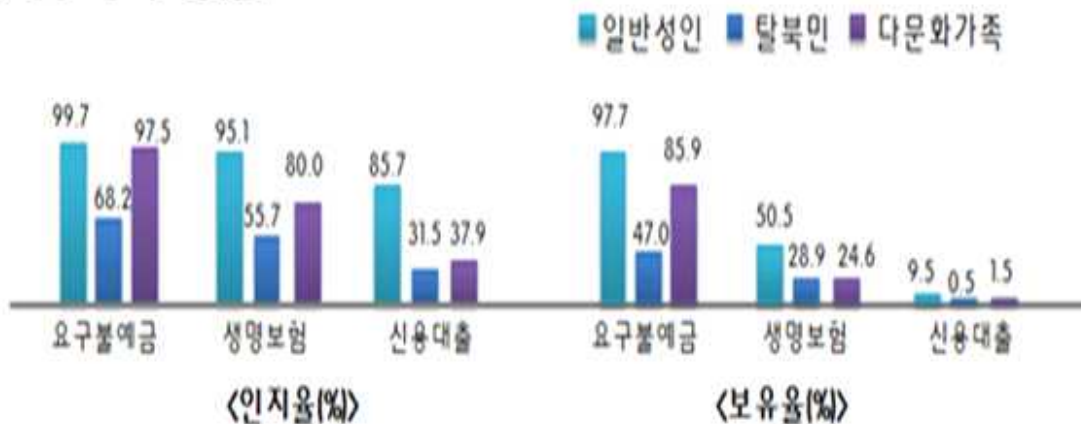
북향민의 금융지식, 금융상품 인지 및 보유률이 남한의 일반성인 다문화 집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은?

북향민 대부분 금융문맹 수준, 금융용어, 금융상품 관련 금융 지식 함양 절실하게 필요함을 시사

북양민의 금융지식과 금융행위가 크게 부족



금융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 인지 및 보유 정도가 연세이 낮음



2013년

안진수교수의 연구조사

(전국민 대상)

취약계층의 금융 이해력의 특징

첫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민 등 취약계층 금융 이해력이

한국 성인 평균보다 훨씬 낮음

둘째: 특히 금융지식 영역에서 격차가 훨씬 더 두드러짐

* 이자, 투자 이해도 현저히 낮음

셋째: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 결여

넷째: 바람직하지 않는 금융행위와 태도로 인해 금융 사기에 취약

한진수 교수 조사 시사점



북양민 취약계층 중 금융이해력 가장 취약함



바람직하지 않는 금융행위로 금융사기 노출 위험성 큼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용어, 금융상품 관련 금융지식 함양 중요 함

4년차 조사결과를 통해 본 공통의 문제

첫째: 북양민 사회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금융이해력 결핍

둘째: 북양민 금융이해력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응책 거의 없거나 매우 미흡한 상태

셋째: 2015년 이후 전용 책자발간 등을 통해 하나원에서 금융교육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 없음

넷째: 금융문맹 개선 위해 금융지식 함양 시급한 정책적 대책이 부재



4. 북향민 금융이해력 양상을 위한 과제

첫째: 금융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무교육과정 개설 필요

둘째: 북향민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필요

셋째: 북향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사전, 금융서적 출간, 이를 통한 교육이 필요

넷째: 북향민 출신 금융교육강사(금융 교사, 금융상담사)양성이 필요

다섯째: 금융강사 취득 민간자격증 제도 설립 및 금융상담사제도 마련 필요

[은행거래 부문에서 통합적 이해와 용어사전 집필방향]

경제학박사 이 기 송
 (kesolee@naver.com /
 010-4216-2337)

은행거래 부문
 표제어 서술의
 필요성과 범위

- **은행거래 부문 선정 표제어 (40개):** 설문조사용 은행거래관련 표제어 (96개)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응답자가 답변한 항목 중에서 선택비율이 높은 용어를 자문위원(2명)과 집필자(2명)의 의견을 반영, 40개의 표제어(필수 표제어: 22개+추가 표제어: 12개+북한용어: 6개) 선정
- **은행거래 부문 표제어 서술의 필요성:** 남북한 금융용어사전 표제어 서술의 상당부분이 은행거래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은 ▲비은행거래 부문 ▲금융생활 및 금융시스템 부문의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하겠음.
- **표제어 서술의 범위:** 이에 본 연구 프로젝트의 은행거래 부문에서는 ①은행거래, ②금리와 대출, ③신용관리, ④외화/환전, ⑤핀테크와 자동화기기(CD/ATM), ⑥북한용어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들과 관련된 핵심 표제어(40개)의 통합적 이해와 향후 집필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함.

[선정 기준]

- 2명의 자문위원과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표시한 용어 중에서 비중이 높은 용어를 필수 표제어(7개)와 추가 표제어(5개)로 선정
- **필수 표제어 선정:** 은행(은행업무), 계좌, 창구거래, 오픈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인증서, 챗봇 / **추가 표제어 선정:** 인터넷전문은행, 은행거래앱, 콜센터, 인터넷뱅킹, 펌뱅킹

[서술의 어려움]

- **북한용어의 1차적 의미 이상의 활용성 & 운용상의 차이 파악 어려움:** '저금소(은행)' '돈자리(계좌)' 등 우리나라 은행 용어와 다른 북한용어에서 오는 생경함→1차적 의미 이상의 활용성과 실질적인 운용상(쓰임새)의 차이 파악 어려움
- **온라인 전자금융(비대면) 사업의 특수성 파악 어려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비대면)관련 자료의 부족과 북한의 온라인 금융사업의 특수성 파악 어려움

[극복 경험]

- **최신 연구 보고서를 활용한 은행업무 파악:** 국내 특정기관(한국은행 등)에서 발간한 북한 은행관련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최근에 달라진 북한의 은행업무 파악, 이를 표제어 서술에 반영
- **국내 북한 관련 연구소 & 은행 산하 연구소의 북한 전자금융 실태 조사 자료 활용:** 전자신문이 최근 국내 북한 관련 연구소 & 은행 산하 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북한 전자금융 실태' 자료에 근거하여 북한의 최근 금융정보화 사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내역 파악

①
 은행거래
 관련
 표제어

②
금리와
대출관련
표제어

[선정 기준]

- 2명의 자문위원과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표시한 용어 중에서 비중이 높은 용어를 필수 표제어(5개)와 추가 표제어(4개)로 선정
- **필수 표제어 선정:** 금리(이자), 대출, 대출금리(예대마진), 원리금상환, 금융수수료 / **추가 표제어 선정:** (불법)추심, 거래한도, 단기 신용대출, 주택청약종합저축

[서술의 어려움]

-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필수 표제어 서술:** '금리(이자)' '대출' '대출금리(예대마진)' '수수료' 등의 필수 표제어에 대해서는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북한용어가 따로 없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서술
-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가 표제어 서술:** '(불법)추심' '거래한도' '단기신용대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추가 표제어에 대해서는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북한용어가 따로 없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서술

[극복 경험]

- **다년간의 근무경험에 기반한 분석 시도:** 금융회사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터득하고 쌓아온 근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리와 대출에 관련된 표제어를 순조롭게 기술

③
신용관리
관련
표제어

[선정 기준]

- 2명의 자문위원과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표시한 용어 중에서 비중이 높은 용어를 필수 표제어(3개)와 추가 표제어(1개)로 선정
- **필수 표제어 선정:** 신용, 신용관리, 신용카드(카드대출) / **추가 표제어 선정:** 체크카드

[서술의 어려움]

- **필수 표제어 서술의 어려움 무(無):** 북한에서는 ‘신용’ ‘신용관리’ ‘신용카드(카드대출)’ 등 개인 신용관련 용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필수 표제어 서술에 어려움 미발생
- **추가 표제어 서술의 어려움 무(無):** 북한에서는 ‘체크카드’ 라는 용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 표제어 서술에 어려움 미발생

[극복 경험]

- **신용관리 교육의 확대:** 개인 신용제도가 전무한 북한에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접해보지 못했던 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올바른 금융활동과 제대로 된 신용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용관리 교육의 기회 마련을 통해 해결 가능
 - 이를 통해 체크·신용카드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개인 신용점수 향상 방법 등에 대해 습득, 실생활에 응용함으로써 현실에 잘 적용하도록 함.
- **신용카드 대출 서비스의 양면성 인지:** 신용카드를 이용해 쉽게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나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등을 받을 수 있어 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으나 대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인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양면성 존재에 대한 인지 필요
 - 특히, 카드 대출 시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신용점수를 끌어 올리는 게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의 연체 금지, 지나친 할부거래 자제 등의 올바른 카드 사용방법을 익히 적절한 소비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

④
외화/환전
관련
표제어

[선정 기준]

- 2명의 자문위원과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표시한 용어 중에서 비중이 높은 용어를 필수 표제어(3개)로 선정
- **필수 표제어 선정:** 환율, 외화송금, 환전

[서술의 어려움]

- **은밀한 외화/환전 거래영역에 대한 북한 실상 파악의 어려움:** 북한의 인위적 환율 조정과 사금융을 통한 환전 성행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북한당국(또는 특정지역)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표제어로 서술하는 데 다소 어려움 발생

[극복 경험]

- **다년간의 금융권 근무경험에 기반한 분석 시도:** 금융회사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터득하고 쌓아온 근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화/환전과 관련된 표제어를 기술

⑤
핀테크와
자동화기기
(CD/ATM)
관련
표제어

[선정 기준]

- 2명의 자문위원과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표시한 용어 중에서 비중이 높은 용어를 필수 표제어(6개)로 선정
- **필수 표제어 선정:** 핀테크, 전자화폐, 디지털화폐, 지역화폐(OO케이), 공과금납부, 자동화기기(CD/ATM)

[서술의 어려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목적 상이:** 우리나라 은행권에서는 거의 모든 은행들이 최신 금융정보기술(FIT)에 입각한 디지털 전환(DT)을 모색, 금융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공과금 결제 납부 서비스) ▲보다 진화된(핀테크 / 전자화폐→디지털화폐) 고품질의 금융 서비스 제공에 주력
 -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사경제 확산 과정에서 유통되는 현금 통제 수단으로 일환으로 전자금융 서비스 도입, 금융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

[극복 경험]

- **금융정보기술(FIT)의 흐름 포착, 이를 접목한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활용성 강화:** 핀테크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디지털화폐가 도입된 것은 물론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도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 필요
 -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T)에 대한 방향성을 빠르게 포착, 새롭게 개발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가입,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
 - 온라인/비대면시대에 걸맞게 언택(untact) 채널(자동화기기·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업무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

⑥
북한용어

- **행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발행인)가 본인의 은행 계좌 예금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남한의 '수표'에 해당)
- **저금대리소:** 조선중앙은행(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 북한의 국내 금융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저금업무를 대리로 맡아보는 저금 취급단위
- **환자거래:**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가 교환되는 거래 (남한의 '환거래' 또는 '외환거래'와 유사)
- **전자상업:**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의미하는 북한용어
- **이관집:** 원거리에 있는 거래처 앞으로 상품거래 대금을 결제하거나 타 지역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비공식 송금거래소(비공식 사금융 기능 수행)
- **환치:** 현금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약속된 증서를 보내어 돈을 보내는 자와 돈을 받는 자의 거래은행에 있는 양쪽의 장부상 계좌 사이에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방법

은행거래
부문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향후 과제

[남한 표제어관련]

■ **남한 은행거래 부문의 좀 더 다양한 표제어를 선정, 분석·서술 범위 확대 요망**

- 은행거래관련 제한된 표제어(40개)를 통해 포괄적이고 복잡·다양한 은행업무를 적시하는데 필연적인 한계 존재
- 이러한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표제어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어의 트리 구조 파악에 의한 연계고리 형성, 관련된 삽화 탑재 등을 통해 다의적·다면적 차원으로 개념을 확장·승화시켜 나갈 필요

[북한 용어관련]

■ **은행거래와 관련된 북한 용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서술 요망**

-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실제로 은행업무를 취급했거나 은행거래를 경험한 금융 전문가나 북한관련 연구자와의 지속적·주기적 교류 형성을 통해 지평 확대 바람직

[남북한 표제어의 밸런스 유지]

■ **은행거래 부문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균형 잡힌 표제어 기술**

- 은행거래 부문의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남한 표제어가 메인으로 기술되고 북한용어가 따라붙는 형태가 아닌 남북한 표제어가 공히 고른 수준(표제어 갯수, 분석 내용 등)에서 서술되어야 가능할 것임

은행거래 부문의 항목별 표제어 개수 및 비중

항목	개수	비중
은행거래	32	30.0
금리와 대출	9	22.5
신용관리	4	10.0
위탁/환전	3	7.5
핀테크	4	10.0
자동회기(KICXATM)	2	5.0
북한용어	6	15.0
합계	40	100.0

비은행거래 부문에서 통합적 이해와 용어사전 집필방향

작성자 : 2팀(비은행거래 부문) 이 조 영

1. 비은행거래 부문 집필의 의미

남북한 금융용어 사전에서 비은행거래 부문은 북한의 금융산업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필 의의가 있었다. 북한 금융산업은 아직 재정과 금융의 분리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산업 내에서 은행부문과 비은행부문의 분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비금융거래 부문 집필을 위해서는 남북한 금융환경의 차이와 은행/비은행 부문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금융환경의 차이를 알고, 북한 금융산업의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금융용어사전 집필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북한 금융산업 특징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형을 따라 북한의 금융은 시장경제와 다른 개념과 기능을 수행하였다. 북한의 금융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하면서 '재정의 보조', '원에 의한 통제' 등과 같이 계획경제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중요시 하였다.

즉, 북한의 금융은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식되어 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실물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는 보조수단으로만 활용되었고, 2004년 「중앙은행법」과 2006년 「상업은행법」의 제정을 통해 이원적 은행제도를 갖추기 전까지 일원적 은행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 금융제도 및 정책은 1990년대 후반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주민들이 금융기관에 저축을 기피하면서, 시장화 과정에서 확대된 대출 수요를 감당할 재원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금융기관 불신으로 저금기피 현상이 만연하면서 북한 주민은 돈이 생기면 은행보다는 장롱 등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그 결과 시중의 통화과잉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계획경제 부문을 다시 위축시키고 국영상점망을 통해 흡수하던 현금 유통경로를 왜곡하여 시중의 통화과잉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중의 통화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2009년 12월 화폐개혁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만 심화시키고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외화선호 현상을 확산시켜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되고 통화주권을 상실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북한 금융산업 발전과정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새로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면서 시장경제요소를 계획화 체계 내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상업은행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상업은행 설립과 은행 중심의 화폐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을 재정적 통제수단에서 벗어나 금융본연의 기능인 여·수신 기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장자금의 통화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업은행 중심의 화폐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시장화 진전을 통해 축적된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소속의 특수은행에 상업은행 기능을 허용하고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도 단위의 지방상업은행을 설립하는 등 상업은행 체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담보 및 보증 등 상업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북한의 상업은행은 기본적으로 국영은행이라 볼 수 있다. 당, 정부, 군 등 여러 기관들이 설립한 은행들이 제한적인 정책 금융 기능과 함께 상업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출업무는 기관·기업소·단체에만 가능하고 개인을 대상으로는 예금만 가능할 뿐 여신을 취급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북한의 금융은 초보적인 상업은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구나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에서 공금융거래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은행부문이 아닌 비은행거래 부문에 대해서는 더욱더 남북한 용어비교나 사례 연구가 어려웠다.

은행거래부문 조차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북한의 상황에서 보험,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하여 남북한 비교는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다만, 북한의 경우 공금융의 역할보다는 사금융이 발달되어 있는 점에서 비은행거래 중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비교가 가능하였고 의미가 있었다.

북한의 사금융은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 정부 재정악화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고 각 경제주체들이 비공식 시장에서 독자생존을 모색하면서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 장마당이 형성되면서 개인들이 상업활동 자금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공급체계 붕괴가 지속되면서 개인을 넘어 기관, 기업소 및 외화별이 기관들까지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여 기업소들의 비공식적인 원자재 거래를 위한 현금거래 등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사금융은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북한의 사금융은 1980년대 환전, 1990년대 고리대, 2000년대 대부/투자 기능으로 확대되면서 2010년대에는 송금시스템까지 갖춘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사금융이 개인간 고리대 뿐만 아니라 돈주들이 기업소에 대어나 투자를 넘어 직접 무역업에 뛰어드는 등 그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여 온 것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시행 이후 더욱 확대되면서 공금융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그 기능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소비보다는 생산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인데, 상업은행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음성적인 사금융 시장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에서 기업들이 1970~80년대 부족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명동사채시장 등에서 융통하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경험으로 북한이탈주민들도 남한에서 은행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깊은 고민없이 쉽게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시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출조건, 이자율,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사전집필에서 비은행거래 부문의 집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비은행거래 부문 집필의 문제점

1) 표제어 선정의 어려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은행거래 부문에서는 특히 북한금융용어와 비교 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북한 자체에 비은행부문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나 용어자체가 미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북한의 비은행거래 부문 용어 9개를 찾아내어 선정하였으나, 가장 단순한 뜻풀이 이외에는 별다른 자료나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진과 집필자 및 자문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집필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미 선정했던 북한 비은행거래 부문의 용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향후에 북한시장의 개방을 고려한다면 남한의 비은행거래 부문의 용어들을 북한식으로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 남북한이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로 생각된다.

2) 남북한 비교서술의 한계

남한 표제어를 서술하면서 북한용어를 비교하는 경우에도 표제어 선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은행거래 부문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교서술의 어려움이 있었다. 비교서술 자체가 불가능한 용어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비교서술이 가능한 경우라도 ‘북한에서는 유사한 용어로 ~가 있다’,는 정도의 서술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은행거래 부문의 표제어 집필에서는 남북한 비교서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오히려 향후 북한의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비은행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는 더 많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3) 해결 방법

북한의 비은행거래 부문 시장 형성 미비로 비은행거래 부문에서 북한 표제어 선정과 집필이 곤란함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득이 선정하였던 북한용어 집필을 포기하고 비은행거래 부문의 다른 남한 용어를 추가하였다. 여기에는 비은행거래 부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남한 표제어의 추가보완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비은행거래 부문은 크게 보험, 대부업체, 저축은행, 리스, 렌탈, 상조 등 생활서비스에 관련된 분야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가입계약이나 이용에 있어 주의할 점들을 중심으로 집필하였고,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다소 전문적이더라도 가능한 자세한 서술과 상품의 구조 등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입 및 투자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집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필함으로써 북한용어 포기나 비교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3. 비은행거래 부문 집필 향후 과제

비은행거래 부문 표제어 선정과 집필의 어려움은 남북한 금융산업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금융이 상업은행 초기 단계에 겨우 다다른 상황에서 비은행거래 분야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의미가 없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은 오히려 향후 북한 금융시장의 개방과 남북한 금융 교류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개

적해야 할 분야가 더 무궁무진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북한 금융산업 발전 단계를 점검하면서 금융용어를 포함한 금융제도를 상호 조화해 나가는 노력들이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남한에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특히 비은행분야는 더더욱 경험이 없고 생소한 분야라는 점에서 이 부문에 대한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와 자료가 필요하며 부담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한 준비와 고려가 필요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위기에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과열되면서 이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이해 부족으로 별다른 검토나 지식없이 주식, 펀드,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 청년층은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몇몇 주위 사람들의 단편적인 경험이나 소문만을 믿고 비은행거래 부문인 투자상품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주식, 채권,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상품 시장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도 함부로 뛰어들기 어렵고, 장기적인 수익을 얻기 어렵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별다른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은 어렵게 모은 재산마저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안내가 부족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는 보험, 상조, 렌탈 등의 시장은 남한 정착 초기 불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가입하거나 이용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따라서 비은행거래 부문에 대한 집필은 은행거래 부문보다 손익 변동폭이 훨씬 크고, 원금손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지식을 전달해 주는 방향으로 집필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권유에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필요한 분야 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한다. 아울러 필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다 수용자가 이해하고 쉬운 세심한 집필도 필요하다.

금융용어사전 집필방향 전략토론회

3분과. 금융생활 및 금융제도

발표자: 이의선

CONTENTS

1. 남북한 금융용어사전 편찬의 필요성
2. 집필방향: 금융생활 및 금융제도
3. 집필과정: 금융생활 및 금융제도

1. 남북한 금융용어사전 편찬의 필요성

남북한 금융용어사전의 필요성

- 한진수(2018)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일반 성인에 비해 **매우 낮음**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란, 개인이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금융 복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지, 지식, 기능, 태도, 행동의 결합(OECD INFE, 2012)

- 한진수(2018)의 논문은 2014년 실시된 금융이해력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그 중 북한이탈주민 200명이 포함되어 있음
- 조사결과 일반성인(67.8점)에 비해 북한이탈주민(51.4점)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6.4점 낮음
 - * 이는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63.4점), 노인(59.9점), 다문화계층(52.8점)보다 낮은 것
- 특히 **금융지식** 영역에서는 그 차이가 도드라짐(일반성인대비 28.6점 낮음)
 - * 성인(78.8점) > 저소득층(71.4점) > 노인(65.5점) > 다문화(52.6점) > 탈북민(50.2점)
- Kim et al. (2017)에 의하면 2015년과 2016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출신주민의 금융이해력(특히 금융지식) 조사결과,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짐 (응답자 수 증가(384명→594명) 등의 외부요인이 있음)
- 2015년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지식이 남한출신주민보다 0.45점 낮았으나, 2016년에는 0.77점으로 격차 심화

남북한 금융용어사전의 필요성

- 정은찬(2016)의 연구에 의하면 **기초금융지식의 부족** 및 합리적 선택과 의사결정력 미비는 **북한이탈 주민의 초기 정착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됨
 - 일원적 은행제도하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였으므로 **남한 금융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움**
 - * 하나원 수료시 발급받은 통장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 수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접근이 어려워 공과금 낼 때마다 은행 영업점방문, 보월가입과 해지시 문제 발생,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총동구매 및 쇼핑용어의 혼란에 기인한 손실
 - 초등학교부터 금융교육을 받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 정규교육 과정에는 금융교육이 부재
 - * 금융용어 이해, 금융정보선택, 금융상품선택, 계약서 내용 이해, 금융투자 및 사기에 대한 두려움 수반
 - 금융 부족 하에서 신용활동에 참여하여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는 악순환
 - * 신용관리능력 부족 → 연체, 채무불이행 위험 증대 →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남북한 금융용어사전의 필요성

- 2015년 금융감독원은 하나원과 MOU를 체결하여 금융교육 지원
 - 하나원 교육기간에 기초 금융지식과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탈북민의 지역 정착 이후에도 지역별 하나센터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자산관리 방법 등을 교육
 - * '똥똥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 등 금융교육 교재 발간
- 금융회사의 사회환원 차원의 탈북민 대상 금융교육이 다양하게 진행



사진출처: 미니투데이, 매일신문, 연합뉴스



- 한진수(2018)의 연구에서 다문화계층과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지식점수가 매우 낮은 것은 금융의 특성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출신 국가의 금융제도 및 금융용어 등이 우리나라와 상이하기 때문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지식 증진방안이 필요함**
 - 교육을 통한 지식증진과 더불어 참고할 수 있는 사전 등 교재개발을 제안해볼 수 있음

2.

집필방향: 금융생활 및 금융제도

전반적 집필방향

- 북한개발연구소가 2021년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 다수의 응답자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38명, 62%)
 - 금융용어사전이 집필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48명, 79%)
-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는 방향으로 금융용어사전을 편찬할 필요가 있음



<금융생활의 어려움 경험>



<금융용어사전의 필요성>

3.

집필과정: 금융생활 및 금융제도

용어선정 및 집필과정



대분류	소분류	표제어후보(112)	주제	최종 표제어(40)
금융생활	금융시장과 거래	금융시장 외 16개	금융시장	금융시장, 금융회사
	재무설계	재무설계 외 15개	가계관리	근로소득, 재무설계
	조세와 세금	조세 외 23개	금융사기	피싱, 유사수신행위, 금융다단계판매
금융제도	금융제도	금융실명제도 외 8개	조세	조세 원천징수,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외 8개	금융생활 제도	금융실명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주택청약제도, 연말정산제도, 신용회복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 세금우대제도, 금융감독제도,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금융상품 환불제도, 학자금융자제도, 개인정보보호제도,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공급기관	한국은행 외 13개	북한고유어	정역생활비, 도급생활비, 재정상대표, 보통보수자급, 현금류, 통칙입제, 협동회회제, 재정통회제, 무현금류, 금융통사정보체계, 무민자산제, 편의봉사요금
금융제도	환율	기준환율 외 15개		
통화와 화폐	통화정책	본원통화 외 7개		

[집필과정(1) 금융시장, 가계관리]

[금융시장 표제어 선정결과]

최초	집필진	전문가	자문위원	최종
금융시장	필수	13	필수	주표제어
직접금융	필수	10		부표제어
간접금융	필수	10		부표제어
금융상품	필수	15	필수	부표제어
금융회사	필수	13	필수	주표제어
금융거래		9		
블록체인		8		
공통인증서	분과이동	16	필수	분과이동
간편결제	분과이동	12	필수	분과이동

[가계관리 표제어 선정결과]

최초	집필진	전문가	자문위원	최종
재무설계	필수	9		주표제어
자산		13		부표제어
예산		6		부표제어
수입		7		부표제어
지출		7		부표제어
가계부		6		
가처분소득	필수	17	필수	주표제어
근로소득	필수	14	필수	주표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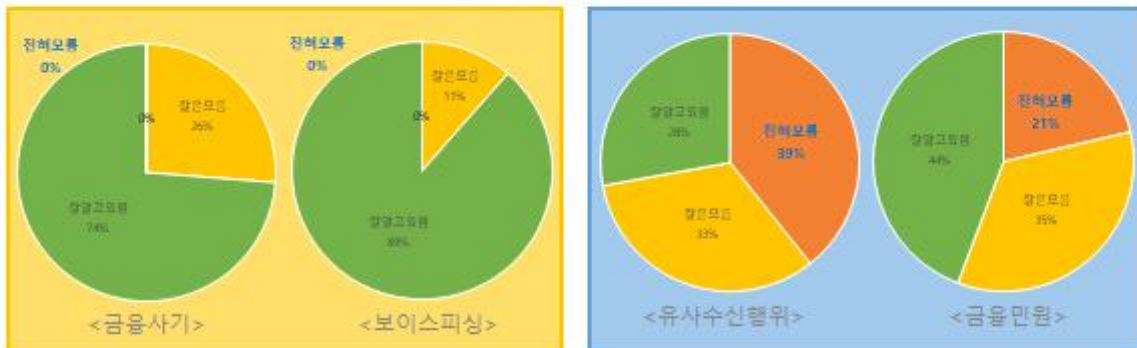
* 집필진, 전문가집단, 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전에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할 용어를 선정하고,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나, 언급이 필요한 용어는 부표제어로서 주표제어에 포함시키도록 조정

- 금융시장: 북한이탈주민의 기초 금융지식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기본적 내용으로 집필
- 가계재무관리: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 내용으로 집필

[집필과정(2) 금융사기]

- 북한개발연구소가 2021년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 유사 범주 내의 금융용어라 할지라도 '전혀모른다'는 응답이 0%~44%까지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금융용어 사용에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금융사기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도]



[집필과정(2) 금융사기]

[금융사기 표제어 선정결과]

최초	집필진	전문가	자문위원	최종	비고
금융민원(상담)		7	필수	부표제어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내
금융사기		12			금융다단계판매 내
보이스피싱	필수	15	필수	주표제어	피싱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피싱)로 변경
유사수신행위	필수	16	필수	주표제어	
금융다단계판매	필수	14	필수	주표제어	
불법사금융		14		부표제어	금융회사

채권추심제도

* 금융사기 영역의 경우 집필진, 전문가집단, 자문위원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영역으로서, 되도록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음

- 보이스피싱: 표제어를 피싱사기로 변경하여 보이스피싱 외에도 다양한 최신 금융사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금융민원(상담): 금융사기 대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내의 부표제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불법사금융: '금융회사' 설명시 사금융에 대한 내용 포함되도록 조정
- 북한출신 전문가가 집필하는 '쉬어가기' 코너에서 금융사기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서술하여 실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집필과정(3) 조세]

[조세 표제어 선정결과]

최초	집필진	전문가	자문위원	최종	비고
조세	필수	14	필수	주표제어	
원천징수	필수	14	필수	주표제어	
소득세	필수	15	필수	주표제어	
재산세		14	필수	주표제어	
부가가치세		13	필수	주표제어	
국세		12		부표제어	조세에 포함
지방세		15		부표제어	조세에 포함
법인세		13		주표제어	
취득세		13		주표제어	
종합부동산세		12		부표제어	재산세에 포함
종합소득세		12		부표제어	소득세에 포함

- 조세 영역의 경우 남북한 용어차이가 극명한 영역
- 집필진, 전문가집단, 자문위원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주제
- 되도록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을 조정함
- 제시된 표제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조세, 원천징수: 납세의 기초지식 영역이므로,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한 문장으로 기술
 -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법인세: 직접세의 원리를 납세자 중심으로 서술
 - 부가가치세: 간접세의 원리를 사례중심으로 서술
 - 기타: 국세나 지방세 등은 조세의 부표제어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표제어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표제어로 포함하여, 우리나라 조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수록

집필과정(4) 금융제도

[금융제도 표제어 선정결과]

최초	집필진	전문가	자문위원	최종	비고
금융실명제도	필수	16	필수	주표제어	
예금보호제도	필수	18	필수	주표제어	
주택청약제도	필수	16	필수	주표제어	주택청약통장
세금우대제도	필수	14	필수	주표제어	
연말정산제도	필수	16	필수	주표제어	
신용회복제도	필수	15	필수	주표제어	
서민금융지원제도	필수	15	필수	주표제어	
금융분쟁조정제도	필수	9		주표제어	
지급준비금제도		6			
학자금융자제도		-		주표제어	신규

- 금융제도 영역의 경우 집필진, 전문가집단, 자문위원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영역
- 남북한 금융제도가 상이하므로 일부러 학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사전출판의 당위성을 제공
-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제도**로 용어선정
 - 거시정책 제도인 지급준비금제도 제외
 -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융자제도 포함
- 각 제도의 역사, 근거법령, 목적 등을 포함하여 각 표제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의 원천을 수록
 - 제도는 정책적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시점에 따른 추가정보 혹은 변경정보 획득을 위한 원천 기술

집필과정(5) 금소법, 공공기관, 환율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조사결과, 전반적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집필진, 전문가, 자문위원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필수표제어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법률의 내용이 다소 방대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금융상품(제도적분류)의 두 가지 주표제어를 선정

금융공공기관

-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은 있으나, 내용선정 등에 있어 집필 시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음
- 집필진, 전문가, 자문위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타 표제어의 부표제어로 포함시킴
 - 금융감독제도(금감원+금융위), 주택청약통장, 학자금융자제도 등에서 기관에 관한 설명을 일부 포함

환율

- 환율의 경우 북한의 환율제도와 남한의 환율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환율제도를 주표제어로 선정하고 기준환율, 환율우대 등 부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부표제어로 포함시킴

집필과정(6) 북한고유어

- 북한의 금융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금융생활 관련 어휘는 선정이 어려움
 - 주로 금융제도관련 용어를 선정
- 용어선정은 1차로 집필진 및 자문위원이 제시한 북한금융제도 관련 용어를 수합하였고, 2차로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하여 **집필의 객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용어들을 최종 선정함**
 - 집필 시 문헌증빙이 가능한 객관적 내용을 중심으로 집필
 - 지역별 사용용어가 다르거나, 공식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경우는 출간자료가 있어 증빙 가능한 경우만을 수록하였음
 - 또한 북한고유어의 경우 주 독자가 남한주민일 것이므로, 북한어 사용을 되도록 지양하고 **남한어체로 변환**하였음

분야	북한고유어
금융생활	정액생활비, 도급생활비, 관의봉사료금
회계	재정상대표, 로동보수자금
금융제도 통화	합동화폐제, 지방남한금융통행책임제, 독립채산제
금융	무한금융통, 금융봉사정보체계
제도	일생산 및 재정총화제도

참고 문헌

- 한진수(2018), 취약 계층은 어디에 얼마나 취약한가? - 2014년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교육연구, 3, pp.49-76
- 정은찬(2016),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북한경제리뷰, 2016년 3월호, pp.53-61
- Kim Minjung, Syngjoo Choi & Jungmin Lee(2017), Economic System and Financial Literacy: Evidence from North Korean Refugees,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53(11), pp.2505-2527

전반적 집필방향

- 북한개발연구소가 2021년 수행한 북한출신 석박사급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용어선정 조사에 따르면, **금융제도** 영역의 집필 필요성이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집계됨
- 금융제도(13.89) > 금융사기(12.50) > 금융시장(11.78) > 세금(11.08) > 가계관리(9.25) > 환율(8.56) > 공공기관(8.38) > 통화 및 화폐(6.00) > 금융소비자보호법(5.67) 순으로 조사됨
 - * 괄호 안 수치는 북한출신 전문가 20인의 필수용어 선정 응답에 대한 단순 산술평균
- 금융제도, 금융사기, 금융시장, 세금, 가계관리 순으로 필수용어 선정의견이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 (1) 남한과 북한의 금융제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기초금융지식(제도, 시장, 세금)**과
 - (2)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생활문제(금융사기, 가계관리)**가 중요한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3분과의 집필방향은 본 사전을 읽는 주 독자인 북한이탈주민의 **기초금융지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집필하고, 남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생활문제의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읽기 쉬운 용어 및 문체를 사용**하도록 하였음

03

북한개발연구소 소개

북한개발연구소 소개자료

□ 연구소 구성원

- 국내외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북향민들과 북한지역 개발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연구자들로 구성

□ 연구소의 성격 및 활동목적

첫째, 공간정보에 기초해 고향 지역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
둘째,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해 북향민 스스로의 학문적 성장을 준비해가는 학술단체
셋째, 국내외 북한개발 연구자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하는 학술단체

□ 연구소의 슬로건

- <북한개발연구는 떠나온 고향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대한민국에 KDI가 있다면, 미래의 통일한국에는 NKDI가 있습니다.>

□ 연구소 연혁

2017년 12월 : 통일부 비영리 민간단체 승인
2015년 02월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승인
2014년 12월 : 기획재정부 비영리 사단법인 승인

□ 연구소 활동 수행 목표

첫째, 185프로젝트(남한의 구 행정단위와 유사한 북한의 구역 및 군급 행정 지역의 개수) 수행을 통해 고향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 마련
둘째, 후배돕기와 정책개발을 통한 북향민 엘리트층의 선도적 역할로 스스로의 학문적 성장과 효율성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기여
셋째, 고향집 위치 찾아주기를 통해 실향민 고통 해소, 광복전 북한 연고지(산업시설, 종교시설)의 뿌리찾기와 뿌리잇기에 기여
넷째, 남북한 기업간, 지자체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컨설팅을 통해 B2B 거래의 지역간 균형적 발전에 기여

□ 수행목표 실현을 위한 활동 연혁

첫째, 북향민 스스로에 의한 연구능력 강화 활동

- 지난 기간 공간정보에 기반 한 국내외 국책 및 용역 연구과제 수행, 북향민들의 한국사회 금융 생활 정착에 필요한 연구도 진행
- 자체로 출간한 교재에 근거해 석박사논문작성 강좌운영

둘째, 남북한 출신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 여행 연습 진행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행안부의 지원하에 남북한 출신들로 6개의 연구팀을 조직하여 동 활동을 진행, 동 프로그램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역개발 우수지역 참관도 진행, 고향개발 잠재력이 새롭게 드러난 연구결과물을 배출, 연구결과를 주제로 한 학술활동 진행. 이에 대해 언론기관들에서 보도
- 2019년에는 재)통일나눔의 지원하에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25회의 전략토론을 진행하고 6개 지역을 참관, 이 과정에 306명의 기업 및 연구자들이 참여하였고 7차례에 언론에 소개되었고 4개의 기업과 MOA 체결, 150쪽 분량의 자료집도 발간됨, 코로나 사정으로 2021년에 2년차 사업이 시작됨

셋째, 북녘땅 고향 집 위치 찾아드리기 캠페인

- 오랜 분단으로 실향민 1세대들은 2세, 3세대들에게 고향의 모습조차 보여줄 수 없는 아픔을 지니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향민 1세대들과 최초로 광복전 집 주소로 고향 집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기술 2건(2017년과 2019년 저작권 취득) 개발

넷째, 북한 지역 종교시설 위치 찾기 진행

- 2015년 연구소 조직과 더불어 원산시 선교거점 구축과 관련한 연구 진행, 이후 북한 전국지역 천주교 성당 위치 찾기 등 공간정보에 기반한 뿌리 찾기와 뿌리 잇기 강의 활동 진행

다섯째, 남북한이 함께 쓰는 금융용어 사전 발간사업 현재 진행 중

- 1)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남북한 출신 26명의 집필에 참여하고 있고 사전출간 및 앱개발도 진행중이다. 북향민들이 남한의 금융상품이해를 돕고, 현명한 금융소비를 지향하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기발간된 철도,과학,건설분야의 남북한용어사전에 당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용어사전과 통합하여 종합남북한용어사전을 기획하고 있음.
- 2)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과나눔 재단과 함께 남북한의 교역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북비즈니스 전략토론회진행 중. 적정기술활용을 통한 대북비즈니스시사점이란 주제로 시작하여 북한토지자산추정, 대북투자나 업체 진출시 입지선정전략 등 대북비즈니스관련 5개의 전략토론회가 예정됨.

04

금융용어 사전 발간 계획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김 병 옥

남북한이 함께 쓰는

금융용어사전 발간 계획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목차

1. 발간배경과 목적
2. 발간 전략과 목표
3. 발간 대책
4. 추진일정과 기대효과

발간배경과 목적

○ 발간배경

- 최근 북한민 대상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속출, 가담에 따른 불법행위자도 증가, 한성무역사건의 피해자가 400명, 피해액이 160억 원(주간한국, 2017년 8월30일)
- 북한민 중 10명 중 3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임, 경제생활의 어려움과 동반한 사행심의 조성, 금융제도의 이해 부족 등으로 금융사기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음
-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겪는 북한민들의 금융피해는 자유민주체제의 금융제도 적용과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통일 후 북한주민들 속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게 됨

○ 목적

- 북한민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금융정착과 일반인들의 북한금융제도의 변화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남북한 금융용어사전을 발간하고자 함

주요 연구 실적

연도	과제명	발주처
2015년	공간정보에 기반한 무산군 연생면뜨라 계별	기획재정부
	통일여와 심덕의 금융생활 정착기	금융감독원
2016년	한국교회 부흥의 발전지 원산지 선교거점 연구	명성교회교회
	북한 시장와 현황과 과제	중앙준비위원회
	공간정보에 기반한 순천시 연생면뜨라 계별	기획재정부
	신덕주시 공간정보 상태	통일부
	남북연 유시수선 피해 상태와 방지방안	남북연나재단
경북전 후 북관지역 문당의 변화와 선교거점구축	전주교 주교회의	
2017년	북한시장 전수조사	태국전역문제연구소(CSWS)
2018년	심증연점을 통한 북관지역 조사	한국공간정보연구원
2019년	북한 부동산 상용열 거래형태와 특징	한국연구재단
	김정은시대 관공산업의 상용열, 국제와 전략과 연뜨라 현황 분석	통일부
2020	북한 부동산 가격상태와 가격결정의 명역	한국연구재단
	평양도시개발과 북관의 도시개발 정책	SH공사
	북관 북부지역 의료시설 공간정보 조사연구	태국전역문제연구소(CSWS)

2. 발간 전략과 목표

사전 발간 5대 전략

첫째, 남북한 출신이 함께 하는 출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반 운영

둘째, 남북한 출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할 분담에 의한 집필

셋째, 실용성, 편리성이 보장된 앱개발, 지속적인 운영 대책 강구

넷째, 남북한 출신의 협력에 의한 용어출간의 사회적 관심 제고

다섯째, 금융교류협력분야 북향출신 인재양성, 남한출신 연구자 능력제고

수행기간 및 예산, 투입인력 집계

수행기간: 2020년 12월 24일 - 2021년 9월 30일

총 예산: 154,000,000원

집필 참여자: 총 28명

남한 출신 11명: 집필 6명, 교정 3명, 저작·외래어 각 1명
북한 출신 17명: 총괄 1명, 자문 6명, 쉬어가기 집필 10명

집필 참여자 종사기관: 5개 은행 종사자, 8개 대학교 전임 및 비전임교수

제작 참여업체: 3개 [인쇄, 영상제작, 동영상 제작]

제작 참여학회: 한국금융교육학회

3. 발간 대책

출간위원회 구성



구분	내용	담당
성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각 분과장 및 팀장	-
분과 구성	집필 및 발간분과(집필팀/ 교정감수팀/ 발간팀)	천규승 부위원장
	앱개발 분과(제작팀/ 유지관리팀)	-
	홍보분과(언론사 보도팀/ 동영상제작팀)	강진규 분과장
	행정 및 예산관리감독분과(행정 예산처리팀/ 저작권 보호팀)	이수룡 부위원장

출간위원회 기능

- 첫째, 월 1차 회의를 통해 전반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대책
- 둘째, 모든 결과물(집필 및 앱 제작, 책자발간)에 대한 예산지급 승인
- 셋째, 앱 제작, 출간, 홍보업체 심사 및 선정
- 넷째, 집필평가자 선발 및 평가팀 운영
- 다섯째, 출간회 행사 및 관련 세미나 주관
- 여섯째, 출간과 관련해 발생하는 법적 사안에 대한 공동협의 대책

집필 방향

- 첫째, 집필수준: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여 북향민의 금융생활과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집필
- 둘째, 집필방식: 사전이 아닌, 백과사전형식으로 서술
- 셋째, 집필내용: 북한의 금융제도, 주민들의 금융생활에 대한 이해 제고, 북향민 대상 금융강사 양성교재 및 유튜브의 해설 자료로 활용
- 넷째, 남북한 출신들간, 발간에 참여하는 각 팀간의 협력심 발휘

집필진 지원도서



남한출신 집필진 개별 과제

- 첫째, 남북한의 용어를 표절이 없도록 서술
- 둘째, 해당 용어에 대해 영어, 중국어, 일어로 표기
- 셋째, 해당 용어 서술 시 관련어 3개 이상 서술
- 넷째, 용어의 남북한 차이를 표나 그림으로 비교하여 설명, 만화나 사진, 일러스트, 비교표, 도해, 북한원전의 표현방식 등 용어에 선택적으로 삽입
- 다섯째, 남북한 용어의 비교표 만들
- 여섯째, 사전크기의 2쪽 서술 보장, 한 개 용어 당 A4 1쪽 서술 (10포인트로 A4 팍 채운 경우, 사전크기의 종이 2쪽에 해당)

집필관련: 용어작성 지침 (한용운)

표제어는 남한에서 널리 사용하는 금융용어를 정한다.

- 1) **[표제어]**- '예금'
- 2) **[뜻풀이]**- 정의형 + 부가 뜻풀이
 일정한 제약에 의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따위에 돈을 맡김[정의형] + 당좌 예금, 정기 예금, 보통 예금 따위로 나눈다[부가 뜻풀이]
 ⇒ 표제어의 정의형 뜻풀이에서는 '표제어 사용 불가' 기타 '부가 뜻풀이, 용례, 해설' 등에서는 사용가능
- 3) **[용례]**- 신문, 소설, 학술지 등에 있는 표제어가 들어 있는 문장.
 예) 《예금》 참고. / 《예금술》 짓다. / 저축은행이 2%대 고금리 《예금술》 속속 내놓으며 고객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은행신문 2020년 12월]
 ⇒ '신문, 소설, 학술지 등' 에서 용례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
- 4) **[동역어]** 예입금 / *북한 용어
- 5) **[관련어]** 은행 예금, 적금 / *북한 용어
- 6) **[심화]**- 그림, 도면, 사진 등
- 7) **[쉬어가기]**- 남측 용어와 관련 있는 북한 용어 등 소개
- 8) **[출전]**- 책, 논문, 보고서, 자료 등
 ⇒ 집필하면서 '참고한 자료' 들을 제시하되, 아래의 양식에 맞도록 한다.
 홍길동(1984), 『금융 연구』, 서울출판사. / 홍길동(1984), '21세기 금융 연구', 서울출판사.
 금융감독원(2012), '21세기 금융 연구', 서울출판사.
- 9) **[검본자]** ⇒ 집필자 이름을 기록한다. 예) 홍길동

북한출신 집필진 개별과제

첫째, 용어선정조사 참여

둘째, 쉬어가기 서술

셋째, 해당 조의 집필과 교정에 대한 자문(보고서로 1쪽 이상 제출)

넷째, 제작된 앱과 동영상에 대한 자문

쉬어가기 집필방향

첫째, 남북한 비교내용(운영목적이나 방식, 고객 등) 있어야 함

둘째, 시작은 에피소드 등으로, 기술에서 주관성 배제, 마감은 시사성 있게

셋째,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제목이나 내용전개가 필요

넷째, 철자법, 띄어쓰기, 한글 교정은 본인이 해야 함

다섯째, 분량은 1-1.2쪽, 한컴바탕체 10포인트, 글 간격 160

여섯째, 정부부처 포함 2,500개 단위 배포될 사전의 내용, 정착여담이 아님

용어 교정대책

교정 및 교열팀 과제 및 분담

구분	과제	분담
교정 및 감수	- 금융용어와 비교표 - 쉬어가기 - 색인 검토	교열: 한용운 편집교정: 박상훈, 한수미
기타	- 사전출간에 따른 집필 방향과 양식 제시 - 일러두기 서술 - 3개 용어 총 18개에 대한 시범 교정 지도 - 용례 추가 - 출판사 연계하에 레이아웃 진행	
외래어 감수	- 금융용어(영어, 일어, 중국어)	
저작권 관련	- 법무법인 광야	저작권팀(이수홍)

교정 및 교열팀 작업약도



4.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사전발간 전체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5일 이전	15일 이후	15일 이전	15일 이후	10일 이전	10일 이후	10일 이전	10일 이후		15일 이전	15일 이후	15일 이전	15일 이후
집필	선정	■													
	집필		■	■	■	■	■								
	교정							■	■						
연재	계약								■						
	추진									■	■	■	■	■	■
편집	공고			■											
	계약				■	■									
	추진							■	■	■	■	■	■	■	■
	평가												■		
영상 제작	계약					■									
	추진				■	■	■	■	■	■	■	■	■	■	■
	평가										■		■		
확립토론회						■								■	
중간회														■	
역 배송															■

기대효과

- 본 사전은 북양면 출신 은행종사자, 연구자들과 남양출신 금융분야 교수 및 연구자 서로의 장점을 공유해 발간되므로 남북한 사전 제작의 새로운 틀리다움을 창출, 영우 남북한 금융교류협력의 안내자 역할 수행
- 본 집필에는 2015년과 2016년 공동연구에 참여한 북양면 19명 중 의망자들이 참여, 또한 국내 은행에 종사하고 있는 북양면 출신 박사들도 참여, 남북한 금융협력 인재와 북양면 금융경사 양성의 기반 형성에 기여
- 북양면 출신들이 남북한 금융교류협력에 기여할 남북사전을 출간한 사례가 없음, 이번 기회로 금융산업공역재단이 선례를 창조, 재단의 파격적인 공역자원사업에 대한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재단의 위상제고에 기여